

| All life All good! |

우리 축산물 건강한 소비방법 교육·홍보 사업을 마치며

| (사)대한영양사협회 |

All life All good이란

우리 축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고

연령에 맞게

적정량 섭취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한영양사협회, 12개 소비자단체가 함께 국민에게 축산물의 올바른 정보·관련 정책을 알리고 축산물 소비현황, 인식·기호도 등의 니즈를 파악하는 다양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를 실시(소비자단체협력사업)하고 있다.

우리 협회에서 단국대학교 문현경 교수팀과 함께 조사한 '육류 소비 현황 및 소비 모형에 따른 영양 섭취 변화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의 육류섭취량은 1일 권장섭취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가임기 여성, 노인기 등 특정 연령층은 매우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오히려 과잉 섭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축산물의 건강한 소비를 위해 부족·과잉 군에 대한 적절하고 바른 육류 섭취에 대한 올바른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생각했다.

이에 (사)대한영양사협회는 2016년 모든 연령(All life)에서 축산물 섭취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건강한 소비방법을 직접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All good)하자는 의미의 '우리 축산물 All life All good 하세요!' 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축산물 건강한 소비방법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세부내용으로는, 첫 번째 교육·홍보 사업으로 '우리 축산물 All life All good'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한 건강한 우리 축산물 섭취방법을 교육·홍보했다. 오늘날 스마트폰·패드 등 휴대 가능한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이 큰 폭으로

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축산물 영양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와 함께 다양한
축산물 요리 레시피를
 간단한 검색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증가했고, 이용자의 99.8%가 '자료·정보습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년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2015)] 이에 따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우리 축산물 교육·홍보를 위해 '우리 축산물 All life All good'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을 개발했다.

본 앱에는 축산물 영양정보와 건강한 축산물 섭취방법 등 다양한 축산물 정보를 집약적으로 수록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손쉽게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우리 축산물을 활용한 요리 레시피 140개와 축산물 요리에 어울리는 소스 레시피 21개를 제공하여 축산물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앱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위해 '나는 축산물 퀴즈왕!', '나만의 비밀레시피', 'App 소문내기' 이벤트와 건강한 축산물 소비방법을 홍보하는 '실천 슬로건 짓기' 공모전을 실시했다. 특히 축산물정보 페이지에 수록된 내용으로 퀴즈를 구성하여 3회에 걸쳐 진행한 릴레이 퀴즈이벤트는 회차를 거듭될수록 정답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참가자들의 축산물 정보 습득 유도 효과를 짐작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교육·홍보 사업으로 '집단급식소 맞춤형 우리 축산물 건강한 소비방법 교육·홍보'를 실시했다. 영양사를 통한 집단급식소 올바른 축산물 소비촉진 및 교육·홍보 활성화를 위해 교육포스터·가정통신문·영양교육 홍보지 등 축산물 관련 다양한 자료를 제작하여 배부했다. 그리고 2016 전국영양사학술대회 시 '우리 축산물 교육·홍보관'을 운영하고 4,500명의 영양사에게 축산물 영양 전문정보, 활용도가 높은 레시피를 제공하여 캠페인 동참을 독려했다.



교육포스터 ▶



▲ 우리 축산물 교육·홍보관 전경



▲ 캠페인 동참 서명이벤트 모습

이를 통해 전국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제공된 축산물 교육자료를 활용한 영양교육·상담, 부모교육, 가정통신문 배부, 축산물요리 실습, 피켓 캠페인 등 피급식자 특성 및 현장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캠페인을 진행하여 전국적으로 우리 축산물 우수성을 알리고 건강한 소비방법을 홍보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축산물 메뉴를 급식으로 제공하여 직접 맛볼 수 있는 체험기회까지 마련하는 등 교육 시너지를 높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했다.

2016년 소비자단체협력사업을 마무리하며 돌아보니 누구나 쉽게 축산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인 앱을 개발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보인다. 2017년에는 작년 실시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하고 영양사와 함께 축산물 메뉴 및 관련 정보를 신속·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앱 활성화와 이용자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다각도의 교육·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본 앱이 건강한 축산물 소비문화의 길잡이가 되어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한 축산물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해본다. ☺